

한국목록규칙과 중국문헌편목규칙의 고전자료 목록기술규칙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Classical Data in KCR 4 and CCR 2

한 미 경 (Mi-Kyung Han)*

목 차

- | | |
|----------------|----------------|
| 1. 서론 | 3. 세부사항의 비교 |
| 1.1 연구의 목적 | 3.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2 판사항 |
| 2. 기술총칙의 비교 | 3.3 발행사항 |
| 2.1 기술의 대상 | 3.4 형태사항 |
| 2.2 기술사항의 구성 | 3.5 주기사항 |
| 2.3 기재순위와 구두점 | 4. 결론 |
| 2.4 기술의 정보원 | |

초 록

이 연구는 고전자료 이용에 필요한 목록기술규칙의 이해와 동양 고전자료 목록(서지기술) 네트워크를 위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KCR 4)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CCR 2)에서의 고전자료의 목록기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총칙의 비교를 위하여 기술의 대상과 기술사항의 구성, 기재순위와 구두점 그리고 기술의 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KCR 4는 책임표시와 판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며, CCR 2는 출판·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였다. 둘째, 세부사항의 비교를 위하여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판중의 기술과 발행사항의 경우 KCR 4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사항의 경우 CCR 2의 제요가 특징적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descriptions and rules in KCR 4 and CCR 2, as follows, for the purpose of seeking understanding of classical materials cataloging rules and networking of oriental historical data cataloging (bibliographical descriptions). First, to compare the general rules, the objects of descriptions and composition of descriptions, recording order, and punctuation and information source of descrip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KCR 4 is more detailed in terms of author role identifications and information source regulations and CCR2 is more detailed in terms of regulations related to printing and publications and serial publications. Second, to compare the details, the main titles and liability indications, edition details, publication details and format details, and note details. As a result, regarding the description of edition type and publication details, KCR4 has detailed regulations and CCR2 has characteristic summary in terms of note details.

키워드: 고전자료, 목록,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 한국목록규칙 4판
Classical Materials, Cataloging, KCR 4, CCR 2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75-293,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27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목록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관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서지사항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입하고 배열, 색인한 것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개념의 도서목록법은 박봉석이 1948년에 편찬한 도서편목규칙이다. 그러나 고전자료를 위한 주요 목록으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대(漢代)의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와 청대(清代) 최대의 목록인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이 있고, 한국의 『규장총목(奎章總目)』은 해제를 붙인 장서 목록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초의 것이다. 다만 이들 서지들은 현대적인 목록규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은 박봉석의 도서편목규칙으로는 현대적인 목록작성의 어려움을 느껴 1964년 한국목록규칙 초판을 제정하였으며, 1966년 제2판, 1983년 제3판, 1990년 제3.1판을 개정 발간하였다. 이후 정보환경 변화와 목록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과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자료 등 개개 자료유형에 따른 목록규칙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매체종류에 대한 통합적인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98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2003년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중국은 개화 이래 서양의 현대적인 목록사상의 유입으로 1920년대에 유국균(劉國鈞) 편이 중문도서편목조례초안(中文圖書編目條例草案)을 발판으로 국립중앙도서관편목규칙(國立中央圖書館編目規則)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개방과 더불어 도서관 문헌 편목의 표

준화를 위하여 1996년에서야 비로소 중국문헌편목규칙(中國文獻編目規則) 초판이 제정되었다. 이후 중국 도서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화 기술의 도입, 국제교류의 증가 및 다양한 이용자 수요와 정보화 변화 따라 2005년 2판이 제정되었다.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일부 대만의 목록규칙과 AACR2 등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왔고, 楊小雲(2006)은 중국편목규칙과 ISBD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鄭衡泌(2004)이 중국과 대만의 중국문헌편목규칙과 중국편목규칙을 대상으로 제정 근거와 원칙, 체제, 적용범위, 기술정보원, 기술문자 그리고 구체적 기술 등의 일곱 부분을 비교하였다. Gu, Ben 등은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의 국제성과 중국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술부분, 개인성명, 연속자원부분, 단체명칭, 통일서명, GMD 등을 대상으로 국제목록원칙(ICP)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목록규칙의 비교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자료 목록기술규칙의 이해와 동양의 고전자료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에서의 고전자료의 목록기술 규칙의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자료 목록기술규칙 비교를 위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KCR 4: Korean Cataloging Rules 4th, 이하 KCR)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CCR 2: Chinese Cataloging Rules 2ed, 이하 CCR)의 고전자료 관련 목록기

술 규칙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고전자료 목록의 기본이 되는 KCR과 CCR을 대상으로 하되 KORMARC와 CNMARC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KCR은 고서와 고문서를 대상으로, CCR은 고적과 탁본 및 수고(手稿)를 대상으로 고전자료 목록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KCR 중 고서 부분을, CCR 중 고적 부분의 목록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적 용어로 '고전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셋째, KCR의 고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을 CCR의 경우 고적과 탁본이나 수고로 분류 기술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CR의 고적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관련 내용의 경우 누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KCR과 CCR의 비교 분석은 크게 기술총칙과 세부사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술총칙의 비교는 다양한 총칙 중 기술의 대상과 기술사항의 구성, 기재순위와 구두점 그리고 기술의 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세부사항의 비교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술방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각 목적과 범위 및 기술요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KCR과 CCR 모두 고전자료에 적용하지 않는 '자료 특성사항'과 CCR에서 고적에 적용하지 않는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섯째, 비교 분석 중의 예는 기본적으로 KCR과 CCR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참고하였다.

2. 기술총칙의 비교

이 장에서는 KCR과 CCR의 기술총칙 규정 중 기술의 대상과 기술사항의 구성, 기재순위와 구두점 및 기술의 정보원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기술의 대상

KCR의 기술 대상 고전자료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이 주 대상이다. 다만 그 이후 간사된 것으로 고서의 영인본이나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CR의 경우 1912년 이전에 중국에서 서사 또는 인쇄된 한어문(漢語文, 즉 어문체) 서적에 적용하며, 중국 각 소수민족언어의 고적과 외국에서 제작된 한어문 고적에 적용가능하다. 즉, KCR과 CCR의 기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시기적 차이. KCR은 1910년 이전을, CCR은 1912년 이전을 시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KCR은 1910년 8월 29일 이후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CCR은 1912년 10월 10일 중화민국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양국의 일반적인 고서 규정의 시기적 규정에도 적용되고 있다.

둘째, 언어적 차이. KCR은 언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CCR은 어문체의 서적을 기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KCR의 경우 한어, 청어, 몽고어, 청어, 왜어 및 한글 등 당시 사용된 언어로 저술된 고전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CCR은 현대 CCR어인 보통화(普通話)가 아닌 고대 어문체로 기술된 서적을 기술

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형태적 차이. KCR은 동장본을 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간사 된 것으로 동장본 형태의 것도 기술의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은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지리적 차이. KCR은 지리적 범위는 규정하고 하고 있지 않는 반면, CCR은 중국과 중국의 소수 민족 및 외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CCR은 어문체로 쓰인 중국 내의 소수민족과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저술된 중국어 어문체 자료도 고전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2 기술사항의 구성

KCR과 CCR의 전체 구성과 고전자료의 기술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전체 구성

KCR과 CCR의 전체적인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KCR과 CCR의 전체적인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기술부와 표목부의 구성. KCR은 표목의 규정없이 기술부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크게 기술법과 표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

<표 1> KCR과 CCR의 전체 구성

KCR		CCR	
기술부	0. 총칙 1. 기술총칙 2. 단행본 3. 지도자료 4. 고서와 고문서 5. 악보 6. 녹음자료 7. 회상자료와 영상자료 8. 전자자료 9. 입체자료(실물) 10. 마이크로자료 11. 연속간행물 12. 접자자료	기술법	1. 총칙 2. 보통도서 3. 학위논문, 과기보고서, 표준문헌 4. 고적 5. 탁본 6. 측량지도자료 7. 악보 8. 녹음자료 9. 영상자료 10. 사진자료 11. 연속성자원 12. 마이크로폼 자료 13. 전자자원 14. 수고 15. 종합저술 및 분석저술
		표목법	21. 총칙 22. 개인명칭표목 23. 단체/회의명칭표목 24. 서명표목 25. 참조
부록 찾아보기		부록	1. 기술사례 2. CCR역사역대규범간칭 3. CCR각소수민족규범명칭표 4. 세계주요국가 및 지역명칭표 5. 주요명사술어

고 있다.

둘째, 기술의 대상. KCR은 고서와 고문서만을 기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의 경우 고적, 탁본, 수고 등을 기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자료 유형의 통합과 분리. KCR은 고서와 고문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고적, 탁본, 수고 등 고전자료의 성격과 형태적으로 다른 유형의 경우를 각각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2.2.2 고전자료 기술사항

KCR과 CCR의 고서자료의 기술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KCR과 CCR의 고전자료 기술사항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사항별 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총칙과 서칙. KCR의 총칙에는 기술의 범위, 기술의 대상, 기술의 정보원, 기술구조와 제요소의 기재순서, 기술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CCR의 경우 서칙에 적용범위, 기술항목, 기술용 표식부호, 기술상세간략급차, 기술정보원, 기술용문자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KCR은 본표제, 자료유형, 대등표제, 표제관련정보, 권차, 회차, 연차표시, 책임표시를 규정하고, CCR은 본표제, 일반문헌유형표식, 대등서명, 기타표제정보, 책임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KCR이 표제관련정보나 권차, 회차, 연차표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의 일반문헌유형표식과 대등서명은 선택적이다.

셋째, 판사항. KCR은 판표시, 특정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은 판본설명, 부가판본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KCR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표시 등의 규정은 CCR에는 없다.

넷째, 발행사항. KCR은 발행지, 배포지, 발행자, 배포지, 발행년, 배포년, 제작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CCR은 출판지, 출판자, 출판년, 수판지(修版地), 수판자, 수판년, 인쇄지, 인쇄자, 인쇄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차이가 보이는 부분으로 KCR이 발행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출판관련 사항 외에 수판사항과 인쇄사항 등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형태사항. KCR은 특정자료종별과 자

<표 2> KCR과 CCR의 고전자료 부분 기술사항

KCR		CCR		비고
고서	0. 총칙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2. 판사항 3. 자료특성사항 4. 발행사항 5. 형태사항 6. 총서사항 7. 주기사항 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고적	서칙 1. 표제와 책임설명항 2. 판본항 3. 문헌특수세절항 4. 출판, 발행항 5. 체제형태항 6. 총편항 7. 부주항 8. 표준번호 및 획득방식항 9. 고적복제품의 기술	• KCR과 CCR의 각 3. 자료 특성사항과 3. 문헌특수세절항, 그리고 CCR의 8. 표준번호 및 획득방식항은 고전자료 기술에 적용하지 않는다.

료의 수량, 기타 형태사항, 크기, 딸림자료를 규정하고 있고, CCR은 수량 및 특정문헌유형표식, 기타형태세절, 크기, 부건을 규정하고 있다. KCR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CCR의 기타형태세절과 크기는 선택적이다.

여섯째, 총서사항. KCR은 총서의 본표제, 총서의 대등표제,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총서의 책임표시, 총서의 ISSN, 총서의 권호, 하위총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CCR은 총편본표제, 총편대등표제, 총편기타표제정보, 총편책임설명, 총편번호, 분총편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CCR은 총편본표제와 총편번호와 분총편 이외는 모두 선택적이다.

일곱째, 주기사항. KCR은 총칙, 주기의 범위, 기술방법, 주기의 종류와 기재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CCR은 부주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KCR의 규정이 보다 세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기재순위와 구두점

KCR의 기재순위와 구두점은 <표 3>과 같다. CCR의 경우 기술 상간 급차를 두어 간략급차(또는 제일급차), 기본급차(또는 제이급차)와 상세급차(또는 제삼급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속기술형식과 문단기술형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간략급차와 기본급차의 문단

<표 3> KCR의 기재순위와 구두점

사항	기재순위와 구두점	비고
표제와 책임표시	본표제, 별표제 [자료유형표시] = 대등표제 : 표제관련정보* . 권차나 화차나 연차 / 첫 번째 책임표시 . 동일 역할의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	*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반복 기술한다.
판	. -- 판표시 / 특정 판의 첫 번째 책임표시 . 동일 역할의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	
발행	. --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 기타 형태사항 : 크기 + 딸림자료	
총서	. -- (총서의 본표제 = 총서의 대등표제 : 총서의 표제 관련정보 / 총서의 책임표시 . 총서의 ISSN : 총서의 권호 . 하위총서)	

〈표 4〉 CCR의 기재순위와 구두점

구분	기재순위와 구두점
간략급차 기술주요항목	본표제명 : 기타표제정보 / 제일책임설명 ; 기타책임설명. -- 판본설명, 부가판본설명. -- 출판지 : 출판자, 출판년 ; 수판지 : 수판자, 수판년(인쇄지 : 인쇄자, 인쇄년) 수량 및 특정문헌유형표시 + 부건. -- (총편본표제명 : 총편번호) 부주
기본급차 기술주요항목과 부분선택항목	본표제명 [일반문헌유형표시] = 대등표명 : 기타표제정보 / 제일책임설명 ; 기타책임설명. -- 판본설명, 부가판본설명. -- 출판지 : 출판자, 출판년 ; 수판지 : 수판자, 수판년(인쇄지 : 인쇄자, 인쇄년) 수량 및 특정문헌유형표시 : 기타형태세절 ; 크기 + 부건. --(총편본표제명 : 총편기타제명 정보 / 총편책임설명 ; 총편번호) 부주

기술형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상의 〈표 3〉과 〈표 4〉와 같이 KCR과 CCR의 기재순위는 전술의 기술사항(2.2.2 참조)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으며, 구두점의 경우 일부 외에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2.4 기술의 정보원

KCR은 기술정보원 우선순위와 기술사항별 정보원 및 복제본의 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술정보원은 기술대상인 고서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채기하되, 1) 권수제면, 표제면, 2) 이제면(裏題面), 3) 판권기, 4) 간기, 인기, 사기, 목기, 5) 책등, 판심, 서근(書根), 이제면(耳題面), 각종 지어 등, 6) 내사기, 7) 권미제면, 8) 목록제면, 9) 진전문, 10) 서문, 11) 발문, 후기, 12) 본문, 연보, 행장, 묘지명, 부록, 13) 해당 자료 이외의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CCR의 경우 전체 기술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술정보원은 고적 자체로서 고적 자체의 정보가 부족하면 기타 정보원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CR과 CCR의 기술사항별 정보원은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기술사항별 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가 있다.

첫째, 권수제면. KCR과 CCR의 표제의 경우 공통적으로 권수제면에서 조사한다. 다만 KCR의 경우 표제면이나 제첩, 이제면, 판심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의 표제의 경우 그 외 기타 각권 권수나 각권 권말, 목차와 범례 등을 정보원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해당 자료 자체. KCR과 CCR 모두 형태사항과 주기사항의 정보원은 자료 자체에서 조사한다. KCR의 총서사항 역시 해당 자료 자체를 정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CR의 총편의 경우 총편총목록, 권수제면 등 표제의 정보원과 규정하고 있는 정보원이 유사하다.

그 외에 KCR의 경우 표제와 책임표시를 구분하여 정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CCR의 경우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KCR의 책임표시와 판사항의 정보원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CCR의 경우 출판·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다.

〈표 5〉 KCR과 CCR의 기술사항별 정보원

KCR		CCR		비고
사항	정보원	사항	정보원	
표제	권수제면, 표제면, 제첩, 서근, 裏題面, 판심제	제명 및 책임설명	본문 제1권의 권수, 기타각권권수, 각권권말, 목차, 범례, 표제항, 판심, 서발, 원 印書簽 및 서책 중 기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R의 권수제와 CCR의 본문 제1권 권수는 동일한 으뜸정보원(또는 규정정보원)이다. • CCR의 경우 총편저록은 총목록을 주요정보원으로 하며, 총목록과 제명 및 책임설명 정보원의 각 부분을 규정정보원으로 한다.
책임표시	권수제면, 표제면, 裏題面, 판권기, 진전문, 서문, 발문 등 해당 자료 자체			
판	간기, 인기, 사기, 목기, 권말제면, 권수제면, 標題面, 裏題面, 판권기, 진전문, 서문, 발문 등 해당 자료 자체	판본	책 전체의 판본유형 특징 및 관련 문자의 기술	
		출판·발행	전체 책 중 관련 서사 각인한 문자기술, 서사 각인 인쇄물의 감정 근거의 특징과 품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예로 종이, 판식, 자체, 목색, 각공, 휘자 등	
총서	해당 자료 자체	총편	총편총목록, 본문제1권권수, 기타각권권수, 목차, 범례, 표제면, 판심, 서발, 원 인서첩 및 총편기타부분	

3. 세부사항의 비교

이 장에서는 KCR과 CCR 중 세부사항의 비교 대상으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및 형태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KCR과 CCR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3.1.1 표제

KCR과 CCR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정보원(또는 규정정보원)에 의거하여 표제를 채기하고 있다. KCR과 CCR의 다양한 표제 관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본서명 정보원 본서명과 관련하여 KCR은 으뜸정보원인 권수제면에서 채기하며, CCR의 경우 역시 본서명은 본문 제1권 권수 제목을 기술한다. 다만 KCR은 권수제와 표제면의 서

명, 표제, 이제(裏題), 판심제 등이 서로 다를 경우 권수제를 우선하여 기술하며, 권수제나 표제면의 서명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머지 으뜸정보원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채기하되 그 출처를 주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CR의 경우 본문 각권 권수의 서명은 사용글자, 조사의 상세와 간략, 배열의 순서가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제1권 권수 제목을 기술하고, 기타 각권 권수 서명은 본서명과 다르면 부주항에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CCR의 경우 권수제외의 본서명 정보원에 대한 부가적인 규정이 있다.

둘째,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자료의 으뜸정보원 KCR은 이 경우 첫째 권(제1권) 또는 첫째의 권수제면이나 표제면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권책의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표제가 첫째 권의 표제와 다를 경우 이를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CCR의 경우 이에 대한 규칙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셋째, 표제 채기의 경우, KCR의 경우 표제를 목록제나 서문, 발문에서 채기할 경우에는 표제 요소만을 채기하며, 정보원에 본표제가 없거나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다른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여 그에 합당한 표제를 만들어 이를 []로 묶어 보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CR의 경우는 <표 6>과 같다.

넷째, 규정정보원이 제공한 서명이 매우 긴 경우. 이는 KCR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CCR의 경우 정보원대로 기술 가능하며, 부주항에서 간략서명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簡要題名 :)).

다섯째, 교체서명의 경우. 이 또한 KCR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CCR은 본서명의 뒤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제는 '原名', '一名', '又名', '혹' 등 연결사로 실제와 같게 기술한다(예 - 三國演義, 又名, 第一才子書).

종합적으로 표제 채기와 관련하여 오류나 기술이 없는 경우 CCR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1.2 책임표시

책임표시의 경우 KCR과 CCR은 기본적으로 정보원의 형식과 순서에 맞추어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책임표시와 저작역할어. KCR은 책임

표시와 저작역할어는 으뜸정보원에 쓰여진 용자와 어순 그대로 표제 다음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1 - 鍾山集. 卷1-8 / 趙存榮 著 ; 趙琦顯 1예 2 - 北壁先生文集 / 金弘濟 著 ; 金樂六, 金樂九 共編). CCR은 책임설명에 책임자 왕조, 명칭과 각종책임방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水經注 : 四十卷 / 漢桑欽撰 ; 後魏酈道元注 ; 明吳琯校).

둘째, 불명찬서의 불명찬자. KCR은 불명찬서로서 불명찬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의 책임표시는 그 찬술을 명한 임금의 묘호(廟號)를 쓰고 그 역조명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고, 이어 '命撰', '命編' 등의 어구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陸律分韻 / 陸游 著 ; 正祖(朝鮮) 命編). CCR은 이에 대한 규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셋째, 책임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KCR은 하고 있지 않으며, CCR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문 제1권 권수에 쓰인 책임설명이 문제가 있으면 성명, 생몰년, 자호, 역조, 본관 등의 보충과 고증은 부주항에서 밝힌다(예 - 春秋經典集解 : 三十卷 / 杜氏注 (杜預 222-284, 字

<표 6> CCR의 본표제가 없거나 생략된 경우

경우	목록기술규칙	예
제1권 권수 서명이 잘못되었을 경우	반드시 원래대로 기술하고 동시에 부주항에서 설명	兩漢博文(附注: 博聞, 首卷卷端誤題“博文”)
본문 제1권 권수 서명이 책 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혹은 서명이 없을 경우	반드시 규정정보원의 기타 부분규정에 따라 적당한 본서명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부주항에서 설명	讀史偶吟; 二卷(卷端題名被竄改爲“念一史彈詞”, 據諸序改回)
규정정보원 중 모두 적당한 본서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타자료에서 조사가 된 경우	조사된 서명을 기술하고 [] 안에 넣고 부주항에서 근거를 설명	[梅夢緣]; 四十回 / 風月軒人女子著(書中未題題名, 據『中國通俗小說書目』“風月軒人女子”條補入)
규정정보원 중 적당한 본서명이 제공되지 않고 기타자료에도 없는 경우	책 중의 내용과 저자 정황에 근거하여 서명을 추정하여 기술하고 [] 안에 기술하고 부주항에서 설명	[星宿論解] (書名代擬)

元凱, 西晉京兆杜陵人)).

2) 본문 제1권 권수에 쓰인 책임설명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거나 또는 책임설명이 쓰여 있지 않을 때, 규정정보원의 기타부분에 따라 적당한 책임설명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부주항에 설명해야 한다(예 - 周會魁校正易經大全 : 二十卷 / [胡廣等纂修] ; 周士顯校正 (卷一卷端被竄改爲 : 陳太史校正易經大全, 長洲明卿陳仁錫校正)).

넷째, 다종의 책임표시. 이 경우 KCR은 모두 기술하나 CCR의 경우 3명을 초과하면 첫 번째 사람만 기술하고 뒤에 “等”을 사용하며, 그 나머지는 부주항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重修桂林宋氏家譜 : 十卷, 卷首一卷, 卷終一卷 / 清宋珍祖[等]總理 ; 清徐克榜纂).

3.2 판사항

KCR과 CCR의 판사항의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판종의 기술. KCR은 판종에 활자 또는 판각을 원괄호로 묶어 판종을 기술하되 판종 말미에 ‘본’ 또는 ‘本’을 붙여 표시하며, CCR은 책속의 판본유형관련 기재에 의거하고 판본유형 감정 기록과 함께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KCR과 CCR 모두 고본, 사본, 초본, 목판본(CCR은 刻本), 활자본, 석인본, 연인본, 영인본, 검인본 등으로 표시한다.

둘째, 활자본의 판종. KCR의 경우 활자본으로서 자명을 붙일 수 없는 판종은 활자의 재료에 따라 ‘목활자본’, ‘동활자본’, ‘철활자본’, ‘도활자본’, ‘신식연활자본’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CCR의 경우 활자본 기술은 반드시 제작재료에 의거하여 판본유형을 부가설명하여 ‘活字本, 木活字’, ‘活字本, 銅活字’, ‘活字本, 泥活字’, ‘活字本, 鉛活字’ 등과 같이 표기한다.

셋째, 목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사본의 판종의 기술. KCR의 경우 <표 7>과 같이 상세

<표 7> KCR의 판종의 기술

종류	판종의 기술		예
목판본	판각성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初刊’, ‘重刊’, ‘飜刻’ 등의 어구를 ‘()’로 묶어 부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木板本 (刊經都監版飜刻) • 木板本(戊申字飜刻)
	기간인본의 번가의 경우	판종에 저본의 활자 및 판각을 ‘()’로 묶어 부기 가능	
목활자본	활자의 고유명칭(書籍院字, 錄券字, 東國正韻字, 洪武正韻字 등)을 ‘()’로 묶어 부기 가능		• 木活字本(印經字)
금속활자본	활자의 고유명칭(高麗鑄字, 癸未字, 庚子字, 甲寅字, 初鑄甲寅字, 庚辰字 등)을 ‘()’로 묶어 부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屬活字本(癸未字)
	재질이 다른 동일명칭의 활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활자명을 가지면서 그 주조한 시기가 다를 경우	유명칭에 활자의 재질을 붙여 기술할 수 있다. ‘初鑄’, ‘再鑄’ 등으로 세분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	
사본	사본(寫本, 鈔本)은 판종표시에 준하여	‘筆寫本’이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楚山日記 / 閔鎮網 著, -- 筆寫本)
	희구자료(稀覯資料) 또는 귀중자료인 경우	자필 원고본은 ‘手稿本’으로, 그 외의 원고본은 ‘稿本’으로 기술	
	저자나 편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베껴 쓴 경우	‘轉寫本’으로 기술	

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CCR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넷째, 목판본 투인(套印)의 경우, CCR의 경우 각본 즉, 목판본 기술 중 일종의 채색안료인 쇄 혹은 다종의 채색안료 투인으로 된 책은 색깔과 투인 차수에 의거하여 판본유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예: 刻本, 朱印. 刻本, 藍印. 刻本, 朱墨套印. 刻本, 三色套印. 刻本, 五色套印. 刻本, 彩色套印).

종합적으로 KCR과 CCR의 판본사항 규정 중 명칭과 판종의 기술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활자본의 제작재료별 판본유형과 목판본의 투인의 경우 다소 규정의 차이가 크다.

3.3 발행사항

KCR과 CCR의 발행사항 규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기술대상. KCR의 경우 전체적으로 발행사항으로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을 대상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출판사항과 수판(修版)사항 및 인쇄사항으로 기술대상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8>과 같다.

둘째, 발행지. KCR의 경우 발행처의 소재지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찰 발행 불서의 발행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출판지, 수판지, 인쇄지로 각각 분류하되 각 행위의 주도자 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발행자. KCR의 경우 침재, 상재, 수재, 주조, 개주, 개판, 누판, 침판, 각판, 개간, 주간, 중간, 신간, 재행, 인행 활인 또는 이와 유사한 어구로 간행의 뜻을 나타낼 경우 그 간인자나 필사자는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토록 하고, 장판자, 유판자 또는 이와 유사한 말로 표시된 경우 간인자로 간주 기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가본은 개인명이나 택명 또는 서재명을 채기하고, 기 발행된 고서를 중간 또는 번각하였거나, 일부를 보수 또는 보각한 경우에는 원발행처가 아니라 중간, 번각 또는 보수, 보각한 발행자를 채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 경우 출판지, 수판지, 인쇄지로 각각 분류하되 각 행위의 주도자를 대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발행년. KCR의 경우 1) 즉위기년의 기술에 있어 묘호명이나 조선조와 고려조가 동일한 경우, 2) CCR 및 일본 자료의 발행년, 3) 목기, 인기, 간기, 사기 등의 발행년이 발행사실과

<표 8> CCR의 발행사항의 기술

사항	발행사항의 기술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본, 사본, 초본, 각본, 활자본, 석인본, 연인본, 영인본, 검인본 등의 출판지와 출판자 및 출판년을 기술 각 출판지의 경우 주도자의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출판자는 주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판년의 경우 완성시기를 대상으로 기술
수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판 각성 이후에 증보, 개정 및(또는) 부록, 새로 인쇄 출시한 고적을 기술하는데 적용
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서 주도자 주도하에 각인 담당자가 각인 출시한 것과 서판 각성 이후 재차 인쇄한자가 원판을 사용하여 재차 인쇄 출시(통칭 後印)한 고적을 기술하는데 적용

일치하지 않음이 분명할 경우, 4) 발행년이 간지년과 고칭간지년으로 표시된 자료의 경우, 5) 발행년이 특수한 간지년(을 비롯한 갑자년, 건국기년, 종조탄생기년으로 표시된 경우, 6) 인기, 간기, 목기 등에 발행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문, 발문, 후기에 기재된 경우, 7) 목판을 후인(쇄) 또는 후탁(後榻)한 고서 등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출판지, 수판지, 인쇄지로 각각 분류하되 각 행위의 주도자 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원 미제공의 경우, KCR은 판본 유형의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으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반면, CCR의 경우 필사본의 경우 '抄書地不詳: 抄書者不詳, 抄書年不詳'으로 목판본의 경우 '刻書地不詳: 刻書者不詳, 刻書年不詳' 등으로 각 판본의 유형별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정보원기술의 경우, KCR의 경우 채기한 '서'나 '발' 등을 간사년 다음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R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일곱째, 제작방법. KCR의 경우 제작표시(제작지·제작자)는 발행지 또는 발행처가 미상이거나 제작지, 제작자, 제작년이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과 다른 경우 발행년 뒤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CR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종합적으로 발행사항의 경우 KCR이 발행사항으로 통일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출판사항, 수판사항 및 인쇄사항으로 분류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행지와 발행자 및 발행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KCR이 각 해당 사항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형태사항

KCR과 CCR의 형태사항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장정의 형태. KCR의 경우 특정자료 종별과 자료의 수량 항목에서 장정형태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권축장(卷軸裝), 절첩장(折帖裝), 호접장(蝴蝶裝), 포배장(包背裝), 선장(線裝), 족자(簇子), 접포(摺鋪), 모장(毛裝), 날장, 패엽장(貝葉裝)으로 기술하고 선장본인 경우와 단위용어에서 장정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반면, CCR은 장정형태에 따른 규정은 없고, 규정 중에 관련 용어(선장, 경접장, 호접장, 포배장, 권축장, 절첩, 산엽 등)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권책의 기술. 기본적으로 KCR은 권책수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R은 책(함)수를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KCR과 CCR의 각 고전자료의 형태별 권책의 기술은 <표 9>와 같다.

한편, KCR은 영본 또는 결본은 소장본의 권책수를 기술한 다음 완질본의 총권책수를 정확히 아는 경우 총권책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缺帙'이라는 어구를 원괄호로 묶어 보기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기타 형태사항. KCR의 경우 기타 형태사항으로 삽화류와 판식표시가 있으며, 그중 판식표시에 광곽의 종류와 크기, 계선, 족보의 세별표시, 행자수, 판구의 기술에 대하여 규정하

〈표 9〉 KCR과 CCR의 권책의 기술

대상 고전자료	KCR	CCR	비고
기본규정	권책수 기술	책(합)수 기술	
권축장	축으로 기술하되, 그 면장수를 원괄호로 묶어 부기	권수를 기술	
절첩장	접힌 장수와 절수를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면수를 병기	책수를 기술	• CCR의 경우 단장 절첩의 서적은 폭수를 기술
호접장	장을 단위로 기술	책수를 기술	
포배장	권책수 기술	책수를 기술	• KCR의 경우 불분권 단책 본을 된 것은 그 쪽(면)수 또는 장수를 기술하며, 다 권 단·다책본은 그 권책수를 기술
선장	권책수 기술	책수를 기술	
지도류와 같은 첩물의 첩포류	포를 단위로 기술		
날장물	'張'을 단위로 기술	엽수를 기술	• CCR의 경우 산업으로 표기
기타	고서나 날장류가 합, 봉투, 목갑 등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면장수 또는 권책수 다음에 그 수를 표시	함투(函套)가 함께 있는 서적은 책수 뒤에 함수를 보충 설명(예 - 10册(2函))	

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고적 완정본의 본래의 도표인 삽도, 초상, 지도, 경물도(景物圖), 기물도(器物圖), 보계도(譜系表), 향해도, 공정도(工程圖), 고사도(故事圖), 산석조수도(山石鳥獸圖), 신괴도(神怪圖), 종교도와 악보 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CCR은 판식 등에 대한 기술은 부주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넷째, 크기의 기술. KCR은 책지의 가로와 세로를 센치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세로×가로cm'형식으로 기술하고 소수점 첫 자리가 '0'인 경우에도 자리수 표시로써 이를 기술

한다. CCR은 일반적으로 고적 자체의 고도를 센티미터를 단위로 기술하되 1cm가 안 되는 경우 1cm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서관의 목록을 살펴보면 소수점 첫 자리까지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전체 기술의 예. KCR의 형태사항 기술과 CCR의 체제형태항 기술의 예를 보면 순서, 용어, 구두점 등의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장정의 형태, 권책의 기술, 기타 형태 사항 등에 대하여 KCR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KCR과 CCR의 형태사항 기술의 예

규칙의 종류	형태사항(체제형태항) 기술의 예
KCR	四周單邊 半郭 27.4×19.5cm, 有界, 10行 19字 註雙行, 黑口, 下向黑魚尾 ; 30.2×25.4cm
CCR	10行, 18字, 白口, 左右雙邊, 單魚尾, 半框 18.9×12.5cm

3.5 주기사항

KCR과 CCR의 주기의 대상은 <표 11>과 같이 KCR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주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R과 CCR의 주기사항 또는 부주항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규정이 조사되었다.

첫째, 서목참고, 기술하고 있는 고적 관련 일종 혹은 다종 서목여부, 색인 수록 여부의 설명을 포함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 - 參考: 『四庫全書總目』, 卷一百八十六, 集部, 總集類一, 第1685頁(中華書局1956年6月第1版); 『中國古書善本書目』 卷二十八, 集部, 總集類, 通代, 第1551頁(上海古籍出版社1998年3月第1版);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 集部, 總集類, 通代, 第2741頁(書目文獻出版社 1987年版) 『四庫全書總目』(說明:此三日著錄梁蕭統輯文選六十卷, 明末毛氏汲古閣刻本)

예 2 - 『四庫全書總目』, 『中國古書善本書目』和『中國善本書目提要』均未著錄

이상의 서목참고 부주항과 유사한 KCR의 주

기사항으로 수록해제지, 참고정보원에 관한 주기의 경우 기술대상자료가 해제지나 초록지, 색인지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收錄解題誌' 등 적절한 표출어를 앞세워 수록된 해제지, 초록지, 색인지의 표제를 기술토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출판·발행. 이 부분에는 <표 12>와 같은 사항들이 주기된다. <표 12> 중 특히 감정대상 판본의 특징적인 근거의 경우 KCR은 형태사항 중 기타 형태사항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출판·발행 주기와 유사한 KCR의 주기사항으로는 발행과 배포에 관한 주기로서 1) 기년이 연호나 즉위기년, 간지기년, 갑자기년, 건국기년, 중조탄생기년일 경우, 2) 기년이 교회간지기년이거나 특수간지기년일 경우, 3) 기년이 '上之00年', '聖上00年', '予踐祚之00年', '今上之00年' 식으로 표기된 것, 4) 자료에 기재된 목기, 간기, 인기, 사기 등의 발행기록, 5) 발행기록이 그 책의 발행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서미기, 발미기 등에 기재된 날짜, 7) 내사기, 사급기(賜給記), 8) 진전문, 진서표(進書表)가 있는 자료 등을 주기한다.

셋째, 장정과 획득방식. 고적 완정본 원래의 장정형식과 획득방식을 주기한다. 구체적으로

1) 장정 성격의 고책은 그 실제 형식에 따라 선

<표 11> KCR과 CCR의 주기의 대상

규칙의 종류		주기의 대상
KCR	주기사항	1) 자료의 성격이나 범위 또는 예술적 표현양식, 2) 본문이나 초록의 언어, 번역이나 개작, 번안 등, 3) 본 표제의 정보원, 4) 상이한 표제, 5) 대등표제와 표제관련정보, 6) 책임표시, 7) 판표시와 서지적 내력, 8) 자료의 특성, 9) 발행과 배포, 10) 형태사항, 11) 딸림자료, 12) 총서사항, 13) 학위논문, 14) 이용, 15) 상이한 형태의 자료, 16) 요약이나 해제, 초록, 17) 참고서목, 연보, 연표, 색인, 원문, 18) 내용, 19)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 20) 합철물, 21) 부록, 22) 분립, 23) 기금정보, 24) 수상, 25) 소장, 26) 수록해제지, 참고정보원, 27) 문화재 지정
CCR	부주항	1) 서목참고, 2) 제명 및 책임설명, 3) 판본과 서목연혁, 4) 출판·발행, 5) 체제형태, 6) 총편, 7) 내용, 8) 장정과 획득방식, 9) 기타, 10) 제요, 11) 복본 편찬

〈표 12〉 CCR의 출판·발행의 주기

주기대상	주기내용	예
출판발행항의 기록출처	출판발행항의 기록출처 주기	• 出版年據俞恒『重刊小學序』著錄
감정 대상 판본의 특징적인 근거	피휘(避諱), 작위(作僞) 행관, 광곽과 판심의 형식, 광곽크기, 각공성명, 글자체, 패기(牌記), 종이 등을 주기	• 牌記鑄: 咸豐丙辰秋九月開雕
장판(藏版(板)) 상황	원책의 소재지에 의거하여 주기	• 本衙藏板 • 京都善成堂藏版 • 版存京都阜成門外衍法寺 • 盛京軍督署藏版, 板存盛京鐘樓南路撫街北永發刻字鋪

장, 경첩장, 포배장, 호접장, 권축장, 모장, 정장 및 평장 등으로 기술, 2) 산엽(散葉) 고적은 “散葉”이라 기술, 3) 장정에 축이 있는 정폭(整幅) 고적은 “권축장”(橫軸 혹은 立軸을 주기) 등으로 기술한다.

이상의 장정과 획득방식 부주항과 유사한 KCR의 주기사항으로는 형태에 관한 주기사항이 있다. 다만 CCR이 장정형식을 부주항으로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 KCR은 기본적인 형태를 형태사항에 기술하고 1) 장정의 문양이나 색채, 철의 재료 등에 관한 것을 ‘장정’ 또는 ‘裝訂’이란 표출어를 앞세워 주기, 2) 사용된 용지와 글씨의 묵색, 3) 단면 인쇄이면서 양면에 면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형태사항을 권책수만을 기술하였을 경우, 5) 광곽의 종류가 다양한 자료, 6) 어미의 종류가 다양한 자료, 7) 다책본 중 일부의 책의 크기가 다른 경우, 8) 기타 형태에 관한 내용 등의 경우 주기한다.

넷째, 제요, 원정보 고적의 내용과 (또는) 형식 특징을 원정보 부주의 끝에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서목의 성격에 따라 어체문 또는 백화문을 선택하여 기술한다. 이는 CCR만의 특징적인 부주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기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1) 고적의 내용 특징 및 주제 사상을 간략게 시하는 서술형 제요, 고적의 작가 간략소개, 유형특징, 편사체제, 내용 요점 및 습작 특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고적 내용을 활요하고 간략 평가하는 추천형 제요, 고적의 내용과 추천성 글이 포함된다.

3) 비교적 상세하게 고적의 내용을 서술하는 평가형 제요, 작가 일생, 주제 서술 및 학술득실 분석, 사회가치영향 등 내용이 포함된다.

4) 고적 내용 구조 반영의 나열형 제요, 고적 목차 또는 표제를 기술한다.

5) 인용위주의 집록형 제요, 인용 문자 외에 작가 일생 등의 정보도 포함되며, 일서(佚書)와 지견서(知見書) 제요가 여기에 해당된다.

6) 고적의 작가, 내용, 판본 및 잔존과 일서 등에 대한 고증류 제요, 고적의 요지 특징과 전래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KCR의 경우 서목참고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수록 해제지, 참고정보원에 관한 주기부분에서 기록대상자료가 수록된 해제지, 초록지, 색인지의 표제를 기술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섯째, 복본 편찬, 고전의 유전(流傳), 수장

〈표 13〉 CCR의 특징적인 부주항

주기대상	주기내용	예
복본서목 참고부주	다양한 복본의 피수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複本參考: 『天祿琳琅書目·後編』, 卷十六, 明版子部, 第九頁(清光緒十年長沙王先謙刻本)(說明: 此目著錄宋真德秀撰大學衍義四十三卷明嘉靖六年司禮監. 重刻本之太興李氏藏本, 卷首鈐“李振宜藏書”陽文印, “御史之章”陰文印… • 『天祿琳琅書目』未著錄
고적의 현전본과 잔존 상황	고적의 현전본과 잔존 상황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冊(10函) • 存 9冊(2函)9卷: 卷1-9
서적 중 잔결(殘缺) 초배(抄配) 상황	서적 중 잔결부분의에 대한 필사 또는 보충 상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卷 12-16, 18抄補 • 卷 3-6, 23-38配清乾隆四年武英殿刻本
판본 유형의 보충설명	권중 서명, 과록(過錄), 비교적 가치가 있는 비점(批點), 교감, 제사(題詞), 발어(跋語) 등 판본 유형의 보충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黃丕烈跋 • 丁丙批點
감정 판본의 복본 특징	감정한 판본의 복본 특징의 근거 설명	
검인(鈐印) 수장자 등의 인문	검인(鈐印) 수장자 등의 인문 기록	• 鈐“乾隆御賞”朱印
복본의 다른 장정	복본의 다른 장정 보충 설명	
새로운 장정, 수복(修復) 등	새로운 장정, 수복 등 보충설명	
기타	필요한 보충 설명	• 國家圖書館藏本有卷6

(收藏) 과정 중 생산 또는 발생한 특징을 기술하는 보충설명을 기술한다. 이는 CCR만의 특징적인 부주항으로 〈표 13〉과 같이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3〉상의 일부는 KCR의 판표시와 서지적 내력에 관한 주기와 성격이 유사하며, 기타 필요한 보충설명의 경우 KCR의 소장주기와 유사하다(예 1 - 所藏: 卷5-8, 13-16, 27, 31-32, 37-39, 41, 43. 예 2 - 所藏: 卷1-3(冊1), 卷4-7(冊2)5, 卷8-11(冊3), 卷20-24(冊6)).

4.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목록규칙 4판(KCR)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CCR)의 고전자료 기술총칙과 세부사항 중 주요 목록기술규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KCR은 고서와 고문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CR은 고적외에 탁본과 수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KCR의 고서와 CCR의 고적을 대상으로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총칙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대상. KCR은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을 주 대상으로 하며, CCR은 1912년 이전에 CCR에서 서사 또는 인쇄된 한어문 서적에 적용한다. 즉, KCR과 CCR의 고전자료 목록기술의 대상 규정에는 시기적 차이, 언어적 차이, 형태적 차이, 지리적 차이가 있다.

2) 기술사항의 구성. 전체적인 구성의 경우 KCR은 기술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CCR은 기술법과 표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CR은 고서와 고문서만을 기술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서부분 기술사항 중 발행사항의 경우 가장 많은 차이가 보이는 부분으로 CCR은 출판사항과 수판사항 및 인쇄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태사항의 경우 KCR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사항 역시 KCR이 보다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CCR의 경우 고적복제품의 기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3) 기재순위와 구두점. KCR과 CCR의 기재 순위에는 일부 기술사항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으며, 구두점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CCR은 기술 상간 급차를 두어 간략급차와 기본급차 및 상세급차로 분류하고 있다.

4) 기술의 정보원. KCR과 CCR은 기본적으로 기술대상인 고전자료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를 채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R이 정보원의 전체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KCR의 경우 책임표시와 판사항의 정보원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CCR의 경우 출판·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의 정보원 규정이 상세하다.

둘째, 세부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본서명 채기와 관련하여 KCR과 CCR은 공통적으로 권수제 또는 본문 제1권 권수 제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CCR의 경우 권수제 외의 본서명 정보원에 대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표제 채기의 경우 CCR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책임표시와 관련하여 KCR과 CCR은 기본적으로 정보원의 형식과 순서에 맞추어 기술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책임표시와 저작역할어의 경우 KCR은 으뜸정보원에 쓰여진 그대로 표제 다음에 기술하고 CCR은 책임설명에 책임자 왕조, 명칭과 각종책임방식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KCR과 CCR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판사항. 판종의 기술, 활자본의 판종, 목판본과 목활자본, 금속활자본과 사본의 판종의 기술, 목판본 투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KCR과 CCR의 판본사항 기술에는 명칭의 차이 외에도 활자본의 경우 KCR은 제작재료를 앞세우는 반면 CCR은 활자본 표기 이후에 제작재료를 부가하여 기술하는 등의 판종의 기술 차이가 있다. 목판본과 목활자본, 금속활자본과 사본의 판종의 기술의 경우 KCR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CCR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목판본 투인의 경우 CCR의 규정은 특징적이다.

3) 발행사항. KCR이 발행사항을 통일적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출판사항, 수판사항 및 인쇄사항으로 분류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행사항에 대한 규정은 KCR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형태사항. 장정의 형태, 권책의 기술, 기타 형태사항, 크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CR의 경우 장정형태를 기술하고 있으나 CCR은 장정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가장 큰 차이는 KCR은 권책수를, CCR은 책(함)수를 기술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KCR의 경우 기타형태사항 중 판식표시에 광곽의 종류와 크기, 계선, 족보의 세별표시, 행자수, 판구의 기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CCR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KCR은 책지의 크기를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세로×가로cm'형식으로 기술하는데, CCR은

1cm가 안 되는 경우 1cm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주기사항. KCR의 주기사항 규정 대비 CCR의 서목참고, 출판·발행, 장정과 획득방식, 제요, 복본 편찬에 대한 부주항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CCR의 출판·발행 부주항은 판본의 특징적인 근거에 대한 주기로서 이는 KCR의 형태사항 중 기타 형태사항에서 기술되는 것이다. 장정과 획득방식 중 장정의 경우 CCR이 장정형식을 부주항으로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 KCR은 기본적인 형태를 형태사항에 기술하고 있다. 제요의 경우 CCR만의 특징적인 부주항으로 서

술형 제요, 추천형 제요, 평가형 제요, 나열형 제요, 집록형 제요 그리고 고증류 제요로 분류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본 편찬 또한 CCR의 특징적인 부주항으로 고전의 유전(流傳), 수장(收藏) 과정 중 생산 또는 발생한 특징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한국목규칙 4판과 중국문헌편목규칙 2판의 고전자료의 목록기술규칙 비교 분석이 한국과 중국의 고전자료 목록기술규칙의 이해와 상호 교류 및 목록(서지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 姜新年. 2007. “編目規則差異和統一進展.” 『公共圖書館』 [online]. [cited 2013.6.30]. <http://www.publiclib.org.cn/library/periodical_show/990.html>.
- [3] 國家圖書館『中國文獻編目規則』修訂組 編. 2005. 『中國文獻編目規則』. 2版.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 [4] 段明蓮. 2006. “中國文獻編目規則的現狀与發展趨勢.” 『中國圖書館學報』, 32(3). [online]. [cited 2013.6.30].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ZGTS200603020.htm>>.
- [5] 梁儉. 2008. “圖書館編目規則的應用現狀及問題分析.” 『圖書館界』, 2: 91-94.
- [6] 楊小雲. 2006. “『中國文獻編目規則』和『西文文獻著錄條例』之比較.” 『現代情報』, 26(11). [online]. [cited 2013.6.30]. <<http://www.worlduc.com/blog2012.aspx?bid=4036638>>.
- [7] 鄭衡泌. 2004. “海峽兩岸中文圖書編目規則比較.” 『文獻信息論壇』, 2(總第70期): 50-53.
- [8] “Descriptive Cataloging of East Asian Material: CJK Examples of AACR2 and Library of Congress Rule Interpretations.” 2004. [online]. [cited 2013.6.20]. <<http://www.loc.gov/catdir/cpso/CJKIntro.html>>.
- [9] GB 3469-83(Document Types and Document Media Codes). [online]. [cited 2013.7.1]. <http://www.chinaagrisci.com/V2/Upment_loadFiles/2008327205127151.pdf>.

- [10] Gu, Ben et al. "Chinese Cataloging Rules and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A Repor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line]. [cited 2013.7.2].
<http://www.nl.go.kr/icc/paper/22_1.pdf>.
- [11] Pong, Joanna, & Cheung, Celine. 2006. "Cataloging of Chinese Language Materials in the Digital Era: The Cataloging Standards and Practices in China, Taiwan and Hong Ko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53-56.

• 국문과 중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 [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 Jiang, Xinnian. 2007. "The Differences and Unify Standard Progress on Cataloging Rules." *Public Library Journal*. [online]. [cited 2013.6.30].
<http://www.publiclib.org.cn/library/periodical_show/990.html>.
- [3] CCR Revision Team, China National Library ed. 2005. *Chinese Cataloging Rules 2ed*. Beijing: Beijing Library Public.
- [4] Duan, Minglian. 2006. "Present Status and Future Trends of Chinese Cataloging Rules." *Journal of Library Science in China*, 32(3). [online]. [cited 2013.6.30].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ZGTS200603020.htm>>.
- [5] Linag, Jian. 2008. "Application Status and Problem Analysis of Library Cataloging Rules." *Library World*, 2: 91-91.
- [6] Yang, Xiayun. 2006. "Comparison between China Cataloging Rules and ISBD." *Modern Information*, 26(11). [online]. [cited 2013.6.30].
<<http://www.worlduc.com/blog2012.aspx?bid=4036638>>.
- [7] Zhong, Hengbi. 2004. "Comparison between CCR and TCR." *Discussions on Documentary Information*, 2: 50-53.

